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확 바꾼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비리행위 근절 방안 포함 공공기관 경영시스템 전면 개편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계기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용)비리행위 근절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간섭, 지침 등을 대폭 개선하고, 경영평가 제도도 새롭게 평가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며 “자율과 혁신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한해 실적을 평가하는 경영평가 제도가 큰폭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경영평가 지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졌으나, 이번에는 대규모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김 차관은 “경영평가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경영평가 관

련된 기관들은 대상이 되는 해당 공공기관, 기재부, 경영평가단, 해당 주무부처 등이 있다. 서로간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경영평가 편람과 시스템을 아우르는 개편방안을 마련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9년에 진행되는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부터는 새로 바뀐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8년 경영평가 편람 개정 작업, 경영평가 시스템 개편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 사회적 범죄다. 새정부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는 엄정 처벌하고 채용비리 근절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계획을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계획을) 폐지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최근 주식시장 여건을 보면 한국전력의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 화력발전회사에도 불리한 정책이 발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매각까지 측면에서 적정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워 잘못하면 헐값 매각이 될 수 있다”며 “시장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공조달 부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차관은 “벤처 창업, 기업, 도시재생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의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활용도를 높이고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25%에 이르는 국유지 등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벤처 등 기업 지원책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조달분야와 관련해서는 “공공조달이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보육 일자리 관련 처우개선 항목도 조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직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고용의 질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며 “임금 체불 기업이나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던 기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과 노사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우대받게 하겠다”고 했다. /뉴스

ING생명, 대졸 공개 채용... 캠퍼스 리크루팅 실시

ING생명은 2018년 대졸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부문은 계리, 전략, 정보기술(IT), 경영지원 등으로 총 30명을 채용한다. 대상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다. 채용은 캠퍼스 리크루팅 현장면접과 서류전형, 1차면접, 온라인 인성검사, 2·3차 블라인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채용은 캠퍼스 리크루팅은 이년부터 3주간 전국 주요 지역 10개 대학에서 열린다. 채용설명회와 함께 현장에서 1차 면접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면접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1차면접 없이 바로 온라인 인성검사와 블라인드 면접을 받게 된다. 해당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대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뉴스



캠퍼스 리크루팅에 참가하지 않는 지원자는 ING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22일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3개월간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사항은 ING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이통3사 무선국사후 관리 허술

4개 중 1개가 정기검사서 ‘불합격’... 최초 검사만 치중

이동통신 3사의 무선국 4개 중 1개가 정기검사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5개 진흥원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이통3사가 무선국 허가를 위한 최초 검사에만 치중할 뿐,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준공·정기 검사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 불량 무선국은 9만 2230개에 달했다. 특히 무선국 설치 시 최초에 실시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4.9%(5926건)인 반면, 5년 후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은 25.7%(8만63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의 최근 3년간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각각 7.1%, 30.6%로 가장 높았다. 무선국 검사는 전파혼선으로부터 주파수 통신문과 전파이용자를 보호하고, 전파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파법’ 24조에 따라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기타국 등의 무선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선국 검사 종류는 크게 정기검사와 준공검사로 나뉜다. 정기검사는 개설허가 시 최초로 전

파법에서 정한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준공검사는 허가 또는 신고받고 운용중인 무선국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한다. 이통3사의 최근 3년간 무선국 정기·준공검사의 주요 불합격 사유는 ▲무선국 동작불능 ▲불완전 전파발사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인테나(형식 등) 상이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설치장소 상이 등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규제가 완화됐다. 준공검사의 경우 2011년 표본추출방식(표본률 30%)으로 검사방식이 변경됐으며, 2014년부터는 20% 표본에 한해 검사 후 표본의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면 전수검사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변 의원은 “사업자가 전수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공검사만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준공검사 불합격률보다 5배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검사는 국민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실시하고 있지만 불합격률은 여전히 상황”이라며 “규제완화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농업인대학 발효식품 전시회 열어

전주시 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28명 졸업생 배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는 17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졸업생 28명과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농업인대학 발효식품 과정’ 졸업식을 가졌다. 농업인대학은 농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은 물론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6개월에서 1년간 총 100시간 이상 운영되는 중장기 심화교육과정이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전통 발효식품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지난 3월 28일부터 전통주와 천연 발효식초, 전통 장류 제조 실습교육 등 총 22회, 100시간의 일정으로 추진된 제13기 전주시 농업인대학 ‘전통 발효식품’ 교육을 이수한 양해남 씨(전주시 인후동) 등 28명이 수료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는 교육생 전원이 그간의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힌 기술로 전통주와 천연발효식초, 전통장류 등 발효식품을 주제로 한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어 그 의미를 더했다. /김민근 기자

韓, 세계 10대 수출국 중 수출 증가율 1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수출국 중 올해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1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8월까지 월간 상품수출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결과, 한국은 작년보다 16.4% 수출이 늘어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큰 폭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상품 수출은 10조5000억 달러로 9.0% 증가했

다. 10대 수출국 중 수출 및 교역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미국이 2위를 기록했다. 8월 수출의 경우, 10대 수출국 중 8월 월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17.3%)을 포함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총 4개국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후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미국 연준(FRB) 자산매입 축소,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뉴스

올해 쌀 예상생산량 395.5만t ... 전년비 24만t ↓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만톤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쌀 예상생산량은 현백을 92.9% 기준, 386만5000톤으로 전년(410만7000톤) 대비 5.8%(24만2000톤) 감소했다. 재배면적과 10a당 생산량이 모두 감소한 결과다. 올해 쌀 재배면적은 75만7000ha로 전년(77만9000ha)과 비교해 3.1% 줄었다.

기본적으로 경지 면적이 감소한데다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으로 인해 타 작물 전환 사례가 늘면서 전체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10a당 생산량은 지난해 539kg에서 올해 524kg로 감소했다. 시·도별 생산량은 전남이 82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72만2000톤), 전북(64만8000톤)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의 56.4%에 달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